

투신자살 노동자 권미경씨 일기

지난 6일 '인간답게 살고싶었다'는 유서를 팔딱에 남긴 채 투신자살한 여성신발노동자 권미경(22)씨는 생전에 남긴 두권의 일기장을 통해 척박한 이 땅의 노동현실에 대한 고발과 함께 어려운 여건을 굳세게 헤쳐나갈려는 의지를 보여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다.

...죽이나 라면으로 이 저녁의 배고픔을 잠재워야 한다. 이 배고픔·서글픔, 영원히 잠재우고 싶다"고 적어 고달픈 여성노동자의 한 단면을 드러내주고 있다. 또 10월11일자 일기에는 "노동강도가 갈수록 더 심해져 간다...인간이 이토록 비인간화되어 갈 수 있다니...요즘은 몸이

"후유, 그래, 이전 내 모습이 아니야...현실을 똑바로 보는 안목부터 길러야 한다."

권씨는 5월16일자 일기에서 "우리는 언제나 나약하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과감하게 일어서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의식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향해 '우리 모두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힘껏 소리쳐 부를 것이다"라며 곳곳한 삶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배고픔 영원히 잠재우고 싶다"

기계처럼 일만 하는 노동환경 '고발' "동료들과 힘합쳐 권리 되찾자"결심

대학노트 2권 분량의 이 일기장에서 권씨는 작업현장과 공단 안 도서관에서 만난 동료노동자들을 통해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섬세한 필치로 서술하고 있다.

권씨는 4월18일자 일기에서 "아침부터 진중일 미싱과 씨름하고, 지치고 피곤한 껍데기를 끌고 들어서는 집어귀 골목길에는 발자국소리만 공허하게 울리고, 저만치 보이는 불꺼진 창문은 어두운 절벽마냥 캄캄하다.

정신을 전혀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사람이 일을 그렇게 죽으라고 하는데 멀쩡하면 어디 사람인가, 기계지. 언제까지 자본의 지배논리 속에 이렇게 억눌리며 살아야 하는걸까..."라고 써 노동환경을 고발했다.

권씨는 지난 5월 이후 잇따른 분신 등 시국사건에 큰 관심을 갖고서 열악한 노동현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깨친 듯 5월3일자 일기에는 이렇게 적고 있다.

권씨는 숨지기 바로 전날인 12월5일까지 일기장에 소중히 기록했다. "지금껏 나는 많은 것을 너무 멀리서 찾으려 했다. 바로 내 직장 동료들과 진정으로 함께 하고자 할 때만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적은 이 마지막 일기에는 권씨가 최후까지 동료들과 함께 뭉쳐 노동현장을 지키려고 애쓴 흔적이 보여, 읽는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부산=최익림 기자〉